

말기 신부전증환자에서 혈액투석과 CAPD와의 비교 연구

고신의대 내과

김경진 · 김성식 · 홍관표 · 옥동민
박시영 · 최창필 · 박진석 · 이시래

의 과

이 충 한 · 이 승 도

연자들은 1983년 4월부터 1987년 3월까지 약 4년동안 고신의대 내과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혈액투석(이하 HD라함) 및 지속성 복막투석(이하 HD라함)을 받아온 환자로서 3개월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169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실 소견, 수혈 요구량, 혈압변화 및 흉부 X-선상의 심·흉곽비를 투석전과 투석후 44개월까지 HD와 CAPD를 동일 환자군에서와 동일 투석기간에서 각각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Hematocrit치는 CAPD군에서 투석전에 비해 높았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혈 요구량은 HD군에 비해 CAPD군에서 낮았다.

혈중 전해질 중 Potassium은 CAPD군에서 투석전 및 HD군에 비해 낮았으며, 투석전에 비해 Calcium은 CAPD군에서 높아졌으며, Phosphorus는 양군 모두에서 낮아졌으나 양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UN은 CAPD군에서 투석전 및 HD군에 비해 낮아졌으며, 혈청 Albumin은 HD군에서 높아졌으나 CAPD군에서는 투석전후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혈청 Cholesterol은 HD군에서 투석전 및 CAPD군에 비해 낮았으나 HDL 및 Triglyceride는 양군에서 투석전후 및 양군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혈압은 투석전에 비해 양군에서 하강하였으며, HD군에 비해 CAPD군에서 유의하게 하강하였고 고혈압 조절에 필요했던 항고혈압제 수는 HD군에서는 투석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CAPD군에서는 투석전 및 HD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리고 투석경과중 항고혈압제가 필요 없게된 예는 HD군은 3예(5%), CAPD군에서는 28예(52%)였고 흉부 X-선상의 심·흉곽비는 CAPD군에서는 투석전에 비해 투석후 20개월까지는 유의하게 작아졌지만

그 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HD군에서는 투석전 및 투석후 32개월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쇄골하정맥 이중도관(Subclavian Double Lumen Catheter) 삽입술의 임상적 경험

연세의대 내과

김문재 · 하성규 · 이호영 · 한대석

급,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있어서 혈액투석 요법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첫째 요건은 지속적인 반복 투석을 위한 혈류량이 많은 혈로(vascular access)의 확보이다.

이에 단기적인 혈액투석을 위해서 과거 1960년대 Scribner 동정맥루 성형술이 보급되었으나 최근에는 경피적 도관삽입술이 이용되면서 충분한 혈류량을 얻을 수 있는 대퇴정맥 삽입술과 쇄골하정맥 삽입술이 간편하게 사영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반복 투석이 필요할 때 쇄골하정맥 삽입술은 대퇴정맥 삽입술에 비해서 환자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출구 피부감염이 적기 때문에 도관의 유지 기간이 길어서 오래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쇄골하정맥 삽입술은 시술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흉(pneumothorax), 혈흉(hemothorax), 우심방 천공(atrium perforation) 등의 치명적인 기술적 합병증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86년 5월부터 1987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세의대 부속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서 46예의 쇄골하정맥 이중도관(double lumen) 삽입술을 시행하고 다음과 같은 이상 성적을 얻었다.

- 1) 환자의 시술 상황에 따른 분류는 급성 신부전증 18예, 말기성 신부전증으로 피하 동정맥루 시술 후 성숙 대기중에 사용이 15예, 장기 혈액투석 환자로서 혈관 폐쇄 시 응급 혈로로 사용이 4예,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단기간 대치요법으로 6예, 낭창성 신염환자에서 혈액투석 및 혈장분리법(plasmapheresis) 목적으로 3예, 간성 혼수 환자에서 혈장분리법 치료목적상 2례였다.
- 2) 쇄골하정맥 도관유치 기간은 최장 42일에서 최단 9일로서 평균 26분이었으며 도관 관리는 2일 1회 드레싱과 헤파린 용액 교체를 세심하게 실시하였다.
- 3) 삽입시술 당시의 합병증으로는 환자의 삽입부 통증